

‘행복한 대한민국 해피만다라’ 선포식

강원도 홍천서 11월 15일

해피만다라해피만다라문화원(원장 동휘)은 11월 15일 만다라보궁(강원도 홍천 북방면 소재) 건립선포식을 봉행한다.

만다라 화가 동휘 스님은 “21세기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문화포교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해피만다라를 세계적으로 인식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 강원도가 세계적인 깨달음의 중심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일체유심조’란 구절을 보고 출가를 결심해 만다라를 현실 속으로 옮겨 부처님 깨달음의 성전을 건립하는데 원을 세웠다.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있어도 실상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만다라를 보고 마음의 눈을 떠 지금 이 순간 행복할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으로

옮기는 행복한 부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1차 기공식과 함께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회 강원지부 창립식도 함께 진행됐다. 그 밖에도 만다라 전시, 친견에 이어 만다라 쌀탑 쌓기, 만다라 합창단의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동휘 스님은 20여 년 동안 세계 각국의 만다라 수집에 몰두하며 만다라를 보급하는데 매진했다. 지난 6월에는 만다라 100여 점을 수록한 도록 <동휘 스님의 해피만다라 해피만다라>를 출간하고 해피만다라 전시회를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만다라 보궁은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세계 각국의 만다라를 전시하고 현대에 맞는 수행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02)3673-3881

이상연 기자

해인사 비로자나불 무생계 수계대법회

25일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모시고 3000여 명 수계



10월 25일 봉행된 해인사 비로자나불 무생계 수계대법회.

경남 함천 해인사주지 선각는 10월 25일 경내 대적광전 앞 담마당에서 ‘비로자나불 무생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전계대화상에 조계종 종정예하 법전 스님을 모시고, 갈마아사리에 해인총림 울주 종진 스님과 교수아사리에는 중앙승가대 교수인 경성 스님을 모시고 봉행된 이날 대법회에는 사부대중 3000여 명이 참석했다.

비로자나불 무생계는 비로자나불이 설하고 문수보살이 전해온 법신계로서 보살계를 한 단계 진전시킨 신행규범이다. 지난 1992년 해인사에서 발견된 국내 최고(最古)의 목조 불상인 비로자나불상 안에서 무생계 계첩이 복장물로 나오면서 다시 빛을 보게 된 무생계는 2005년 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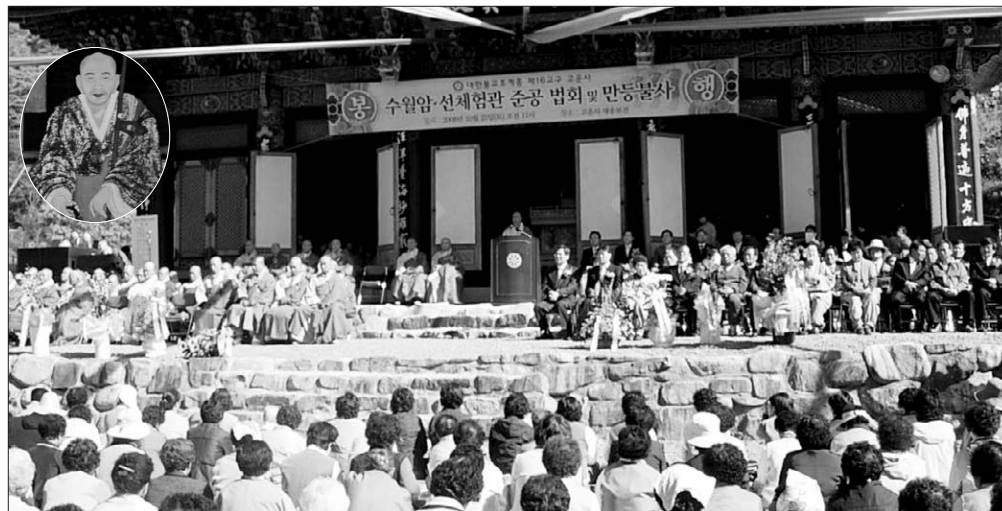
봉행돼 올해가 네 번째로 본래 오래 공부한 수좌에게만 전하는 최상승 계로 평가된다.

폐불 이우에 이어 대령관옥, 입제식, 상단불공, 공양, 달마도 시연과 포먼스, 천도의식, 법문, 수계의식(참회, 연비) 계첩 배포, 요잡 순으로 봉행된 대법회에서 해인총림 울주 종진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 제자는 부처님 제자답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계’를 받는 것이다”며 계의 의미에 대해 말했다. 이어 계를 받은 불자들은 갈마아사리 종진 스님과 교수아사리 경성 스님이 봉송하는 무생계를 따라 읽으며 참된 불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박재완 기자

고운사 수월암·선체험관 준공법회

사부대중 1000여 명 참석...법계도비 제막식도



의성 고운사는 10월 25일 대웅보전에서 수월암·선체험관 준공법회를 봉행했다. 원내는 대비주 수행으로 유명한 수월 스님의 진영.

조계종 제16교구본사 의성 고운사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참선도량으로 거듭난다.

고운사주지 호성(는 10월 25일 고운사 조실 근일, 회주 혜승, 직지사 주지 성웅, 선운사 주지 법만, 법주사 주지 노현 스님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복규 의성군수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월암 및 선체험관 준공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준공 법회와 함께 의상 스님의 화엄일승법계도를 숲으로 조성한 ‘명상의 숲’에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점안식과 법성계의 원문과 해석을 새긴 법계도비 제막식도 함께 봉행했다.

이번에 모습을 드러낸 수월암은 구한말 수월영민 스님(1817~1893)이 10년 동안 두문불출하면서 수행 정진하던 터로 3년에 걸친 복원작업 끝에 준공됐다. 의성군에서 출생한 수월 스님은 고운사에서 출가해 송암 스님에게 구족계를 받고 혜월 스님의 법을 이었다. 각화사 남암에서 10년간의 면벽수행을 했으며, 용성 스님 등에게 법을 전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와 불교문화강좌 등을 실시할 예

정인 선체험관은 지상 1층 참선체험관 231㎡, 지하 1층 식당 567.6㎡ 규모로 2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행공간으로 건립됐다.

이번 법회를 성황리에 봉행한 고운사는 전국 최고의 강원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옛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내년부터 강원을 신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화축제도 활발히 펼치는 등 지역 내 수행·

복지·문화 중심 도량으로 자리매김 할 계획이다.

고운사 주지 호성스님은 “고운사를 창건한 의상 스님과 가운무, 우화루를 건립한 최치원 선생이 고운사에서 펼친 화엄사상을 근간으로 수행하는 도량, 지역민과 함께 하는 도량으로 일신해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준공법회가 끝난 뒤,

소외된 지역민에게 나눔을 전하는 회향의 자리도 마련됐다. 사부대중이 등(燈)을 달아 나라의 안녕과 소원성취를 기원하며 만등불사를 거행한 것. 만등불사의 수익금 전액은 의성, 안동, 영주, 봉화, 영양 5개 시군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을 위한 ‘행복나누기 자비의 김장김치’ 사업에 쓰인다.

노덕현 기자

한옥마실가는날

옥천서 가을음악회

음악과 춤으로 풍류를 만끽하는 자리에서 달마도를 소재로 대형 붓을 이용한 행위예술이 소개돼 눈길을 끈다.

석주 이종철 화백은 10월 25일 옥천 한옥촌주민속관에서 개최한 ‘10월 한옥마실가는날 음악회’에서 ‘달마도의 만남’을 주제로 행위예술을 선보였다.

경기무형문화재 제8호 승무 살풀이 이수자인 정원자 선생의 도살풀이를 시작으로 열린 음악회는 서도소리 연구가 한재연 선생의 산염불공연과 준 인간문화재인 박영준 선생이 충청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옥천을 방문해 서도 창극 배뱅이굿을 선보였다.

혜철 총정지사장

골굴사 중등대안학교 선무도화랑사관학교 개교

12월부터 선무도 청소년 화랑수련회도 개최

불교 전통무예인 선무도를 특성화한 대안학교가 설립됐다.

경주 골굴사(주지 적운·사진)는 10월 1일 중등 교육 과정의 선무도 화랑사관학교를 설립하고 학생을 상시모집 한다. 모집인원은 30명이며, 교육내용은 선무도를 비롯 ▲원어인이 지도하는 영어 ▲승마 ▲활쏘기(국궁) ▲다도 ▲판소리 ▲서예 ▲한국 춤 ▲선(禪) 무드라 테라피 등이다.

골굴사 주지 적운 스님은 “선무도 화랑사관학교의 건학이념은 원효 선사의 화쟁 사상을 실현하는 21C 생이 충정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옥천을 방문해 서도 창극 배뱅이굿을 선보였다.”

무학년, 무학급, 무기한 체제로 운영되는 선무도 화랑사관학교는 선무도 지도자의 기초과정을 교육하고 영어 회화의 습득으로 글로벌 시대 문화인의 기능을 습득시킨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만행을 통해 이웃과 지역사회가 함께 동참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골굴사는 겨울방학을 맞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선무도 청소년 화랑수련회를 개최한다. 수련내용은 아나파나사티(호흡관), 명상, 선기공, 선무술, 불교한문, 전통문화,

국궁(활쏘기), 승마 등이며, 대상은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1차 12월 21일부터 매주 접수하며 1주간 참가인원을 100명 이내로 제한한다. (054)744-1689 김성우 기자

군승의 날 기념법회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일면)는 제40주년 군승의 날 기념법회를 11월 25일 오후 6시 하림각(종로 부암동)에서 봉행한다.

군불교후원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법회는 ▲유공자 포상 ▲통일가사·군불교40년사 봉정식 ▲지관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법어 등이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부대중은 14일까지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일면) 총무실에 신청하면 된다. (02)749-8646 김진성 기자

조계사 원심회 창립

20돌 기념법회 봉행

장애인포교에 앞장서온 조계사 원심회(총재 세민, 회장 김장경)가 창립 20돌을 맞아 11월 9일 오전 11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원심회는 1988년 수화 교육을 시작으로 창립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불심단결과 사회기여를 위해 노력해 왔다. 매주 일요일 11시에는 장애인이 참석하는 조계사 일요일법회를 개최하고,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한글교육과 수화지도, 각종 불교행사시 수화통역봉사, 점자경전, 녹음도서 사업도 진행해왔다.

노덕현 기자

법상·청안 스님

성대·서울대서 특강

스님들이 잇달아 대학 강단에서 불교 수행법을 전한다.

일산 덕양선원(http://cafe.daum.net/zeol) 선원장 법상 스님은 11월 12일 오후 5시 성균관대 교양학부 ‘한국문화의 이해’ 시간에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하착(放下着: 내려놓음) 강의와 실습수행을 지도한다.

법상 스님은 같은 날 오전 10시 25분에는 성신여대 교양학부 ‘동양의 철학과 문화’ 강의시간에 같은 내용으로 강의한다.

성균관대 강의와 관련, 법상 스님은 “중국 유학생들조차 불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음을 걱정하는 교수님의 열려에 의해 이번 강의를 이뤄졌다”면서, “한국의 정신문화가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산 스님의 제자인 청안 스님(영리원광사 주지)도 11월 6일 오후 5시 서울대학교 자연대 25-1동 국제회의실에서 ‘한국 선불교 전통의 현대적 적용’을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갖는다.

서울대 교수불자모임 불이회(회장 배광식 교수)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강연회에서 청안 스님은 송산 스님의 선사상을 바탕으로 생활속의 참선 방법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김성우 기자

빙의 퇴마 최면을 전수합니다

빙의 치유

- 영을 직접 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한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전생체험

-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사업자에게 사업성취를, 기도자는 기도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수 있습니다.

치유가능한 증상들

- 빙의(귀신병), 퇴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공포, 불면증, 만성두통, 게임중독, 약물중독, 급한성격, 집중력, 성적향상 등등
- 빙의, 퇴마, 최면을 배우실분 ●자기최면, 타인최면을 배우실분
- 자녀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님
- 포교활동에 꼭 필요하신분(성직자 특별우대, 종교불문)
- 전수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의학, 최면, 빙의, 퇴마 등을 한곳에서 전수가능하며 전수 후에 각 시도 지사도 가능함.

- 최단기간 실전교육
- 최면기술 누구나 가능합니다.
- 어디 아프세요, 불치병 몽땅 상담하세요.
- 하는 일마다 안풀리세요, 당신의 사주를 바꾸세요
- 빙의(귀신병) 퇴마, 최면? 100% 전수 - 치유
- 우울증, 공황장애, 산소수맥
- 비염, 발기부전 특효

서울지사 :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251번지
연세빌딩 후문앞 지장사
☎ 02)796-7579 / H·P 010-3056-3315

- 부산교육 : 연중무휴
- 서울교육 : 금, 토, 일

한국 빙의 퇴마 최면 연합회 본부 지 장 사 현오 합장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TEL 051)364-5586 / 010-3056-3315 HTTP://WWW.JIJANGSA24.ORG